

여야 3당, 당내 갈등 조짐 '모락모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1, 2, 3당 내부가 심상치않다. 3당 모두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당직 인사나 총선 결과의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해 체제 정비에 들어간 상태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3당 곳곳에서 불만의 기운이 짙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한비당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수도 있다.

도로친박당 움직임에 비박계 불안 비등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박계 출범을 반대하던 친박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또 당직 인선에도 친박계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공동 원내대변인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당선자, 공동 원내부대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양수 당선자와 최경환 의원 비서실장 출신의 강석진 당선자, 최 의원의 대구고 후배 이만희 당선자 등을 선임했다. 원내부대표단 가운데 비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오신환 당선자와 김성원 당선자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선 이후 친박계 내부에서도 2선 후퇴론이 적지 않았지만 어느 틈엔가 쑥 들어갔다. 그러더니 이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범 친박계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에 이어 당권도 친박계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박계는 꿈틀하고 있다. 비박계 중진 의원은 모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원

새누리당, 친박 VS 비박...혁신위 구성 어디로 더민주, 주류 VS 김종인계 '불안한 동거' 국민의당, 비호남계 요직에 호남과 못마땅

내대표와 겸임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뭘 혁신하겠냐"며 "결국 해신, 해신 노래를 부르지 못 이긴 적하고 비대위 하나 달걀 띄워놓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전까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속내는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들의 복당을 최대한 막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판도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친박계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12일 정진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과 관련,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의 다른 아니다"라며 "지금 이대로의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된다면 나중에는 손도 못 써보고 가라 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무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영남 지역 당으로 쫓겨나 소멸할 것"이라고 쓰아붙였다.

호남 총선 패배는 김종인 탓?

더민주의 주류와 김종인 대표 간 신경전이 여전하다. 김 대표는 11일 변재일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앉혔다. 이를 두고 친노 주류들은 일단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면서 9일초 당대표가 수도 선출되면 정책위의장을 다시 뽑을 수도 있다고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비주류 변 의원의 입명이 여전히 못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총선의 호남 패배

를 놓고 김종인 대표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엔 주류진영의 생각이 적잖이 녹아 있는 것으로 김 대표 입장에서는 여간 심기가 불편한 게 아니다.

실제 김 대표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참석차 호남을 방문했다가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자신을 겨냥한 호남 참패 책임론과 무관치 않은 듯 했다. 김 대표가 떠나자마자 바로 '김종인 성토'가 시작됐다. 워크숍 기획 행사로 진행된 '광주시민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김 대표에 대한 직격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오경미 한국퍼실리테이션협회 광주전남지회 기획이사는 "문 전 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있었다. 이제는 저 사람하고 손을 잡고서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자괴감을 줬다"며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웠다는 불편함과 자괴감에 정점을 찍은 것이 셀프공천이었다. 거기서 민심이 광장히 돌아왔다"고 김 대표를 성토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김 대표의 '셀프 공천'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국민의당, 당직 인선 미우리는 썼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중심의 비호남 계열이 요직에 오른데 대해 호남계열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경기

안산이 지역구인 김영환 의원을 사무총장에, 인천 부평갑이 지역구인 문병호 의원을 수석사무총장에 앉혔다. 문 의원은 전남 영암 출신이지만 안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해 '안철수 사람'으로 꼽힌다.

한 당내 비호남계 핵심 당선인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직의 경우 현역(당선인)들이 할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현역들은 국회에서 일하고 본인들의 의정활동이 더 바쁠 것이다. 그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의 인사들에게 주요 당직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배 공동대표를 위시한 호남 인사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이바지한 점이 당직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직 인선)을 지역으로만 접근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치에서, 야당에서 호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호남 당선인들 사이에선 주승용(전임 원내대표)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호남권 당선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호남 쪽이 (당선인) 숫자가 많으니까, 호남 정서를 당무에 반영해야 하니까 (호남 사무총장론을 주장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부의장이나 주요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호남계열에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3당은 이같이 내부에서 주류-비주류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수면 위로 분출한 것은 아니지만 1, 2당은 향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양 계파가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성주 기자

김관영 의원, 완다에 새만금 투자 요청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12일 중국 완다그룹 부회장 일행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중국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이날 중국 내 부동산·문화·엔터테인먼트 투자 분야 최대 큰손인 왕수경 부회장 등은 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투자브리핑을 받았다.

완다그룹은 지난해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계열로 그룹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등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설명회는 완다그룹과 새만금개발청의 상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외자유치를 위해 법 개정 등

도 문건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응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지난 13일 2016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했다.

전북도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비롯한 그라운드골프, 에어로빅스체조 등 민속종목까지 모두 9개 종목에 김제시체육관 일원에서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노인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신 어르신들께서 우리사회의 원로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른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선관위, 오늘 '관계레' 재현행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주향교 문화관에서 전통 성년례 '관계레'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전통 성년례 '관계레' 재현을 통해서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유권자로서의 책무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년을 유권자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與혁신위장 김용태 "뺏속까지 다 바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비박계 3선의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선임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태 의원은 우리 당의 짧은 피 중 하나로 늘 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개혁적 정치인"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뺏속까지 바뀐 새누리당을 아꼈다가 지지를 철회한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한달 전 우리는 참담한 패배를 맞았다. 패배의 결과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렇게 민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그냥 집권여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환상에 빠져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패배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패배의 순간보다 지난 한달 간 더 참담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매를 치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새누리당은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하며 단청 부렸다"며 "그것이 지금 처해있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환경부장관 사퇴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가슴기살균제 피해 주무 부처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주·이인영·이석현·우일식·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격과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지 말고 윤성규 장관은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장관의 후안무치는 질의답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며 "현안보고에서 윤 장관은 '장사속이 빛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환자들을 만나보았느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산업부와 묶어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답변이었다"며 "과연 윤 장관이 환경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게 하는 답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가슴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산업부가 공산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사고 발생 초기 철저한 역학조사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정의당 '기간제교사 차별금지 노력'

정의당이 15일 "교육 전반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재정과 교원의 적절성 확보, 기간제 교사의 채용, 남발과 차별 금지 등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와 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스승의 날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교육제도와 문화의 개선은 외면하고 참고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을 마녀 사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마저 훼손하는 정부당국과 교육 관료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피고교인 교육 문제와 이렇게 만든 근본 문제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모두가 행복하고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토크콘서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아흐레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 내일 전북 방문

원불교 종법사 예방 등 민심잡기 나서... 정당 이미지 부각·지지를 하락세 만회 의도 해석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오는 17일 전북을 방문한다.

이날 방문에는 천정배 당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조배숙 당선인, 전정희 의원 등도 동참한다.

안 대표는 이날 원불교 종법사 예방에 이어 맞춤형 보육문제 민생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 안철수 대표는 도내 학부모들의 고민 해결 등 대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찾은 예정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연기금특화 금융타운 조성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안 대표는 광주로 이동,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관측통들은 안 대표의 이번 방문을 두고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와 최근 호남에서의 지지를 하락세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일 전북을 비공개 방문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민생행보의 보폭을 넓히며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권이라는 장기적 목적을 두고 방문한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신광영 기자

차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임명... 정책·경제수석도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하고 현 안총평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수평 이동시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세 번의 충북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수석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

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사위원 등으로 일했다.

강 신임 경제수석의 경우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다. /이성주 기자



누리봉사단, 꽃밭정리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새누리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로 구성된 누리봉사단은 지난 13일 오전11시,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꽃밭정리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도당여성위원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의 민수무강을 기원한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